



## 미국-EU FTA 추진현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

이아름 연구원

-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EU가 2013년 2월 13일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으며, 2013년 7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년 내 최종 타결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.
- 미국과 EU가 2011년 미국-EU 정상회의 직후 고위급실무단(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)을 구성한 후 공동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2013년 2월에 미국-EU FTA의 추진방향과 효과를 제시한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음.
- TTIP(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)이라고 불리는 미국-EU FTA 제 1차 협상이 2013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임.
  
-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, 활발한 상호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.
- 2012년 기준 미국과 EU의 실질 GDP는 각각 13조 5,932억 달러, 14조 5,693억 달러로 양국의 규모는 전 세계 실질 GDP(54조 393억 달러)의 절반 수준임.<sup>1)</sup>
- 2012년 기준 양국 간 상품교역 규모는 6,466억 달러에 달하였지만 미국이 EU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함.<sup>2)</sup>
  
- 미국-EU FTA 체결로 교역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, 나아가 각종 기준 및 규제의 표준화와 전 세계의 양자·다자간 자유무역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됨.
-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, 양자 간 자유무역 성과로 미국과 EU는 매년 각각 950억 유로, 1,190억 유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1) Glocal Insight 2013년 6월 15일에 업데이트 된 자료 기준.

2) 미국 상무부(U.S. Department of Commerce), "Trade in Goods with European Union"(<http://www.census.gov/foreign-trade/balance/c0003.html>, 2013. 7. 2 조회).

-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EU의 교역과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양국의 다른 무역상대국과의 수출 규모도 각각 8%, 6%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.
  - 상호의존적인 교역관계에 있는 다른 무역상대국도 미국-EU FTA로 인해 무역규제가 표준화됨에 따라 비용절감 혜택을 받아 무역상대국 GDP 또한 2027년까지 868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<sup>3)</sup>
    - 미국과 EU의 무역상대국인 아세안이 189억 유로(GDP의 0.89% ↑), 중국이 90억 유로(GDP의 0.03% ↑), 인도가 18억 유로(GDP의 0.04% ↑), 동유럽이 15억 유로(GDP의 0.33% ↑) 등 미국-EU FTA의 혜택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돌아갈 것으로 전망함.
  - 미국-EU FTA 발효로 인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향을 차단하는 효과가 생겨 협상이 중단되었거나 미루어졌던 다른 국가들 간의 양자·다자간 자유무역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.
- (금융서비스) EU 금융산업은 EU 일부 국가의 금융거래세 도입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, 미국과 EU의 FTA 체결로 양국 간 금융서비스의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.
- 최근 EU 국가 중 11개국이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었지만, 최소 6개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거래세 범위와 세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.<sup>4)</sup>
    - 영국과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금융업계의 반대로 적용이 지연됨.
  - 미국-EU FTA의 비관세 조치와 금융거래 및 은행시스템 관련 법률제도의 통일로, 양국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.
  - 금융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제고로 미국과 EU의 GDP가 매년 각각 20억 유로, 12억 유로 증가하고, 미국과 EU의 금융서비스 수출도 매년 각각 0.07%, 0.02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<sup>5)</sup>
- (보험산업) 미국-EU FTA 체결로 양국의 보험 관련 규제가 표준화될 경우 위험분산성(risk-spreading)이 높은 미국 보험산업이 EU 국가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- 비관세 조치와 규제 표준화로 상품 승인(product approval)과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여 경쟁시장 확대와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.
    - 미국과 EU의 규제 표준화는 국제기준에 파급효과(spill-over effects)를 미치고 양국의 보험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임.

3) EU 집행위원회(2013), 「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, Impact Assessment Report on the future of EU-US trade relations」, p. 44.

4) 이정환(2013), 「유럽금융거래세 도입지연」, KIRI Weekly, 보험연구원.

5) Berden(2009), 「Non-Tariff Measures in EU-US Trade and Investment - An Economic Analysis」, ECORYS, p. 123.

- EU의 GDP 증가에 대한 보험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,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23억 유로 규모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<sup>6)</sup>
  - 그 이유는 미국의 對EU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미국의 보험산업이 효율적이고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더욱 발전할 것임.

(USTR, EUROPA, KOTRA 등)

---

6) Berden(2009), 「Non-Tariff Measures in EU-US Trade and Investment - An Economic Analysis」, ECORYS, p. 130.